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흔히 있어온 또 하나의 죽음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양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그 민중을 체념에서 일어나게 하고, 공포 속에서 비겁하게 도망치던 저들이 죽음 따위를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체험한 사건을 몸으로 증거하게 되었기에 부활사건이 된 것입니다.

성서의 증인들은 공통되게 부활사건에 대해서 언제나 한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부활사건은 바로 그의 수난사건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체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경험은 빌라도도 안티파스도 가야파도 할 수 없었고, 오직 그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의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과 자신들의 부활, 즉 절망에서 희망으로, 체념에서 쫓기로, 죽음에서 삶으로 둔갑하는 자신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유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릴래아 민중들이 그랬습니다. 참 예수를 이해 못한 그 민중, 예수의 죽음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던 그 민중이 눈이 뜨임과 동시에 예수의 부활을 만천하에 외침으로 자신들이 부활한 것을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부활 경험은 갈릴래아 예수의 죽음당함인 그 개인에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함과 더불어 예수가 부활했다는 주장과 자신들이 부활(ἐγείρω, 봉기)했다는 것을 유리시키지 않았습니다.

2. 세진이의 부활을 경험한 어머니

나는 세진이를 직접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어머니에게서 부활한 세진이를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의 돌연한 죽

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 어머니는 그저 한 어머니로서 비통하게 죽은 아들을 슬퍼하며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일반의 어머니들과 같이! 그러던 그 어머니가 잠에서 깨듯 새로운 인식을 했는데, 그것은 “내 아들의 아픔, 또 이를 당해내야 했던 나의 아픔이 결코 우리 가족들만의 고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이 경험하는 아픔, 그 아들의 죽음의 ‘연대성’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홀로’에서 ‘우리’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자기의 품에서 역사의 현장에 내놓은 것입니다. 세진이를 독점하는 어머니라는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어머니는 세진이의 죽음을 품에 안고 울거나 하는 패배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그의 죽음의 의미를 역사화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 어머니에게는 세진이의 죽음 때문에 아파하는 자기를 위로하는 소리 따위는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세진이의 죽음은 이미 그 어머니에게는 의미가 없고, 죽었다 살아난 세진이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살아난 세진이는 이미 어느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함께 경험해야 할 역사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어머니는 세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소리 따위 그리고 세진이를 미화하는 칭찬 따위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서 그는 “세진이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외쳐야 했던 바로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세진이 개인의 이야기만 부각시키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그 어머니의 시선은 세진이와 함께 죽은 재호에게로, 5월 20일에 같은 방법으로 죽은 이동수, 또 바로 그 달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죽은 여학생 박혜정의 죽음과 연결시켜 그 아들의 죽음의 연대성, 그 맥을 더듬게 됐습니다. 그러한 연대적 죽음에서 그 어머니는 현재 살아 움직이는 세진이를 경험한 것입니다. 부활한 세진이 말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나는 그간 가끔 초청을 받아 여러 모임에 참석하여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모임의 성격은 다르고 또 나에게 주는 느낌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 똑같은 것은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나는 꼭 세진이를 만나는 느낌입니다. 길거리의 가투장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이러한 교회의 집회에서, 특히 지난 4월 8일 수유리에 있는 4월혁명 기념식장에서 세진이를 보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여러분 하나하나에서 세진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부활하십니다.

마침내 그 어머니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땅에서 고난받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며, 이 땅에는 이미 부활한 많은 작은 예수님들이 감옥에서, 길거리에서, 노동현장에서, 또 이 자리에서 많은 고난받는 민중 사이에 계십니다.

그 어머니는 이미 자기 자식을 위해 우는 본능에 사로잡힌 엄마가 아니라, ‘너’, 아니 ‘우리’를 위해 우는 이 땅의 엄마가 된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의 신학적인 견지입니다. 그 어머니가 도달한 인식은 수십 년 신학연구에 몰두한 사람들도 못 낸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